

단령 제도법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5기 단령을 중심으로 -

장 민 정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Danryeung* Pattern Method - Focusing on the 5th *Joseon Dynasty* -

Min-Jung Chang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7. 7. 10 접수; 2017. 8. 16 수정; 2017. 8. 18 채택)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preserve the form of traditional costumes and to set the prototype for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various Korean costumes. This study therefore attempts to analyze the Danryeung pattern methods in textbooks in order to propose a prototype of Korean costumes and a system suitable for modern men, focusing on the Danryeung of the Joseon Dynasty. The research method examined the flow of the Danryeung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and the portrayal of the appearance of people of the time through portraits and paint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surements and patterns of textbooks' Danryeung based on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he 5th Joseon Dynasty. From that, the study will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extbooks and artifacts and will propose a Danryeung system for the body shape of modern males in their 30s.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propose the guideline for the design modification of Korean costumes by providing basic data for subsequent productions.

Key Words: Construction(구성), Danryeung(단령), Joseon Dynasty(조선시대), Pattern Method(제도법)

I. 서론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복식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복식은 퓨전한복, 생활한복, 신한복 등의 이름으로 재해석되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변형되는 일부 디자인들로 인하여 한국복식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전통복식의 형태를 보존하고, 다양한 한국 복식의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한 원형 설정이 요구되며, 이를 현대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복식의 원형분석과 제도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엄란이·이예진(2014)은 20대 후반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에 따른 저고리 원형의 변형을 살펴보고, 정옥임(2010)은 치마 원형

⁺Corresponding author : Min-Jung Chang
Tel.: +82-920-7628, Fax. +82-920-2075
E-mail : chang_mj@sungshin.ac.kr

제도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강순제 외 4인(1999)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옥임(2010)은 두루마기 원형 제도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김희숙(1988)은 여자 두루마기 원형 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새로운 제도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국복식의 제도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저고리와 치마, 바지와 두루마기를 중심으로 원형 제도법 연구 및 체형에 따른 패턴 변형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복식이나 다른 외투(袍)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한국복식의 원형 설정과 현대 남성에 맞는 제도법을 제시하고자 조선시대 단령을 중심으로 한복구성학 교재에 나타난 단령 제도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양한 조선시대 복식들 중 단령은 시기별로 변화가 나타나 다른 포에 비해 출토복식이나 유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형태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통하여 조선시대 단령제도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고, 초상화와 회화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착장모습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시대에 대한 시기구분은 시간의 간격이 일정하여 단령의 형태 변화를 알아보기 적합한 임명미(1997)의 연구에 따라 5기로 구분하였으며, 조선시대 시기별 단령은 발굴된 유물이나 초상화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단령의 유물들은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묘주나 착용자의 물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단령의 특징분석을 바탕으로 한복구성학 교재 단령의 치수와 패턴을 분석하고, 현대 남성의 표준체형을 반영한 단령 제도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한복구성학 교재 단령의 형태 및 특징의 기본이 되는 조선시대 5기 단령을 바탕으로 교재와 유물 단령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30대 남성의 체형에 맞는 단령 제도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한복구성학 교재들은 단령 제도법을 치수 산출법이 아닌 유물을 토대로 한 직접 치수로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표준화된 단령 제도법을 제안하고 체형에 맞는 단령 제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선시대 단령의 원형을 계승하고, 한국

복식디자인의 변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선시대 단령의 특징

단령(團領)은 깃이 곧은 직령에 비하여 깃이 둥근데서 유래된 명칭으로, 조선시대 단령은 왕의 상복, 백관의 공복(公服), 시복(時服), 상복(常服), 서민의 혼례복으로 착용되었다(김문자, 2015). 백관의 공복과 상복은 형태와 색상에서 볼 때 전혀 다른 복식제도이었으나(이은주, 2005) 상복과 시복이 공복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김미자, 1982). 상복은 평상시 집무할 때 착용하는 옷으로 단령이며 소매가 넓고, 길이가 뒤꿈치에 닿을 정도로 길었으며, 직급에 따라 색을 달리 하여 착용하였다(안명숙, 김용서, 1998). 흉배는 상복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당사관만이 등과 가슴에 네모난 흉배를 가식하였고 품계에 따라 무늬를 달리하였다(유희경, 김문자, 1981). 시복은 관리들이 입궐하여 알현하거나 공무를 집행할 때 입는 관복으로(김영숙, 1998), 형태는 상복과 같지만 흉배는 달지 않았다(강순제 외, 2015). 사대부의 단령은 혼례복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벼슬이 없는 서민이 혼례복으로 관복을 착용하는 것은 금제임에도 불구하고 혼례 시에는 신분의 제약 없이 사모관대(紗帽冠帶)가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신혜성, 홍나영, 2007).

본 연구에서는 한복구성학 교재 단령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조선시대 5기 단령을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시기별 조선시대 단령의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고, 조선시대 5기 단령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2기는 연산군(1495)부터 선조(1608)까지로 옷의 구성상 모두 홑옷이었다(최은수, 2004). 단령의 깃은 많이 파이지 않아 내의(內衣)의 동정만 보이는 형태였으며, 화장이 길고 진동보다 수구가 좁은 곡배레이었다(문공화2004). 무는 직사각형 형태의 무를 주름잡아 넣는 형태와 직사각형 무를 접어 윗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은 형태가 보여졌다(김신애, 2014). 조선시

대 3기는 광해군(1608)부터 숙종(1720)까지의 17세기로 대체로 단령과 직령으로 구성된 겹옷이었으며, 흉배는 국말에 비해 큰 형태이었다(유송옥, 1998). 3기 초에는 배래선이 등근형의 소매가 나타났으나, 중반부터는 두리소매가 등장하며 소매통이 점점 넓어졌다(최은수, 2004). 직사각형 무를 접어 겨드랑이 아래에 고정하는 형태와 사다리꼴형 무를 뒤로 짓히는 형태가 나타났다

(김신애, 2015). 조선시대 4기는 경종(1720)부터 순조(1834)까지의 18세기로 홑단령에 직령을 끼워 넣는 겹단령이 많았고, 깃의 파임이 깊고 깃너비가 넓어진 형태이었다(문공화, 2004). 두리소매이며 소매통이 넓고 수구는 진동보다 좁아졌으며(최은수, 2004), 사다리꼴형 무가 뒤로 젖혀져 뒷길에 매듭단추나 상침으로 고정되어진 형태이다(문공화, 2004).

<표 1> 시기별 단령의 착장모습

시기	착장 모습			
	초상화		회화	
2기 연산군(1495)– 선조(1608)				
	정탁(1526-1605) (출처: 초상화의 비밀.p.33)	권응수(1546-1608) (출처: 17세기 무관의 옷이야기.P.121)	호조낭관계회도(1550) (출처: 분홍단령의 비밀.p.149)	중묘조서연관사연도(1535) (출처: 분홍단령의 비밀 p.153)
3기 광해군(1608)– 숙종(1720)				
	김석주(1634-1684) (출처: 초상화의 비밀.p.36)	이시방(1594-1660) (출처: 초상화의 비밀.p.136)	사괘장연회도첩(1668) (출처: 경기도 박물관)	족석루 연회도(1624) (출처: 조선시대 단령의 착용규례와 실례에 관한 연구)
4기 경종(1720)– 순조(1834)				
	전운상(1694-1760) (출처: 초상화의 비밀.p.36)	이창운(1713-1791) (출처: 초상화의 비밀.p.36)	왕세자 입학도(1809~1830) (출처: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영묘조구결진작도(1767) (출처: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5기 헌종(1834)– 순종(1910)				
	이하응(1820-1898)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귀익현(1833-1906) (출처: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무신년진찬도병(1848)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효정왕후고희축하진찬도병(1901)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조선시대 5기는 현종(1834)부터 순종(1910)까지이며 19세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조선은 통상수교를 거부하다가 강화도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였고(안명숙, 김용서, 1998), 고종 때 법전편찬, 의제개혁(衣制改革), 세수체제(稅收體制) 등을 통한 왕권 강화를 꾀하였으나(김문자, 2015), 일본 등의 열강에 의해 국권이 피탈되었다(유희경, 김문자, 1981). 고종 8년(1871) 흥배제도가 다시 논의되어 문관 당상관은 쌍학(雙鶴), 당하관은 단학(單鶴), 무관 당상관은 쌍호(雙虎), 당하관은 단호(單虎)로 사용하도록 하였다(안명숙, 김용서, 1998). 또한, 고종은 개방이후 근대화의 일환으로 고종 21년(1884) 갑신 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을 단행하였다. 관복은 흑단령만을 착용하게 하였으며(유송옥, 1998), 당상관은 유문흑사(有紋黑紗), 당하관은 무문흑사(有紋黑紗)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이후에는 여기에 흥배를 가식하여 대례복으로 착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유희경, 김문자, 1981), 대례복은 흑단령, 소례복은 착수 흑단령을 착용하게 하였다(유송옥, 1998).

5기의 단령은 4겹을 한 번에 바느질하는 겹옷의 형태로(이춘경, 2005), 직선형 소매와 두리소매 두 가지 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두리소매는 좁은 소매와 넓은 소매가 병행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소매통이 4기보다 다소 좁아졌다(최은수, 2004). 무는 사다리꼴형 무가 뒤로 젖혀져 뒷길에 무의 윗부분이 상침 되어있는 형태와 두루마기 무와 같은 삼각형태의 무가 보여졌다(김신애, 2014).

각 시기별 단령의 착장모습과 형태는 <표 1>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2. 한복구성학 교재의 단령 제도법과 패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령의 제도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복구성학 교재의 단령 제도법을 참고하였다. 한복구성학 교재의 선정 기준은 리서치사이트 랭키닷컴(<http://www.rankey.com>, 2016)에서 온라인 서점 1, 2, 3위로 선정된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을 중심으로 한복구성학 교재를 검색한 후, 그 중 단령 제도법이 제시된 교재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 16권의 교재들 중 단령구성법이 제시된 교재는 9권이었으며, 단령 구성법과 단령패턴이 함께 표기된 교재는 7권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령의 요소별 형태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므로 단령패턴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교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한복구성학 교재 7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령 구성법이 제시된 한복구성학 교재들은 <표 2>에 정리하였으며, 이 후 한복구성학 교재의 명칭은 <표 2>에 제시된 번호로 표기한다.

한복구성학 교재의 단령 치수와 패턴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한복구성학 교재는 개인의 신체치수를 치수산출법에 적용하여 단령 구성요소들의 치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아닌 단일 치수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단일 치수를 이용한 단령 제작은 개인의 신체치수 및 체형에 적합한 단령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저고리와 두루마기 치수산출법과 단령의 치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신체치수를 반영할 수 있는 단령 치수산출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단령의 품과 화장, 고대, 진동, 길이는 교재 저고리의 품, 화장, 고대, 진동과 두루마기 길이의 산출법을 참

<표 2> 단령 구성법이 기재된 한복구성학 교재

번호	출판연도	저자	교재명	출판사
1	2013	이주원·김월계	이론을 체계화한 한복구성학	경춘사
2	2011	조윤숙·홍선옥	한복구성	경춘사
3	2004	김정호·이미석	우리 옷 만들기	한남대학교 출판부
4	2002	서옥경	한국의상구성	경춘사
5	2001	박선영	전통한복구성학	수학사
6	1994	박영순	전통한복구성	신양사
7	1989	김분칠	한복구성학	교문사

<표 3> 한복구성학 교재별 단령 제도의 치수 및 패턴

(단위: cm)

구성 요소		번호	1	2	3	4	5	6	7
길이			128	총길이-10	총길이-10~15	140	140	128.5	128.5
1/4폭			31	B/4+6	31 (B/4+8~9)	30	30	30.5	30.5
고대			22	(B/10+2)*2	22	22.5	22.5	21.5	21.5
진동			30	B/4+7	32 (B/4+5~7)	33	33	30	30
화장			88	97 (저고리 화장+5)	95 (저고리 화장+ 15~20)	-	95	87	87
소매	길이		-	-	53	-	-	54	54
	너비		56	67	58	63	63	42	42
두리 너비			2	8~9	9	7~7.5	7	2	2
수구			24	25 (진동-6)	22	-	25	22	22
겉섵	윗너비		-	-	16	-	17	16	16
	아래너비		30	33	28	36	37	30	30
	길이		106	-	133	-	-	124	124
안섵	윗너비		7	8.6 (안섵 아래 1/3)	13	-	2	5	5
	아래 너비		25	26 (겉섵 아래 3/4)	24.5	18	18	29	29
	길이		90	-	120	-	-	-	-
무	윗너비 (사선너비/ 직선너비)		13/9	-	10	10	10	-	-
	아래너비		38	42	36	22	22	36	36
단령깃	너비		5	5	4.5	5	5	5	5
	과임		22	24	-	-	28	25.5	25.5
직령깃 너비			9	10	9.5	-	-	10	10
겉고름	너비		8.5	7.5	9	-	8	위 6.5~ 아래 8.5	위 6.5~ 아래 8.5
	길이 (장/단)		125/96	125/105 (단령길이-20/ 긴고름-20)	123/113	-	137	-	-
안고름	너비		4	3.5	5	-	-	4	4
	길이		-	55	45	-	55	50	50
단령 패턴	겉길								
	안길								

고하여 단령의 치수산출법을 도출하였으며, 각 교재마다 참고치수와 치수산출법으로 도출된 치수가 매우 다양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수산출법으로 도출된 치수를 사용하였다.

교재 1은 단령 유물의 실제 치수를 참고한 것으로, 1/4품은 31cm, 화장은 88cm, 진동은 30cm, 길이는 128cm이며, 고대는 22cm이다. 교재 2는 단령의 치수산출법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1/4품은 $B/4+6$ cm, 화장은 저고리 화장+5cm(97cm), 진동은 $B/4+7$ cm, 길이는 총길이-10cm, 고대는 $(B/10+2\text{cm})\times 2$ 이다.

교재 3의 경우, 단령의 1/4품은 $B/4+8\sim 9$ cm(31cm), 화장은 저고리 화장+15~20cm(95cm), 진동은 $B/4+5\sim 7$ cm(32cm), 고대는 22cm이며, 길이는 총길이-10~15cm로 제시되어 있었다. 교재 4 단령은 1/4품 30cm, 화장은 치수가 제시되지 않았고, 진동은 33cm, 단령의 길이는 140cm, 고대는 22.5cm이다. 교재 5의 1/4품은 30cm, 화장은 95cm, 진동은 33cm이며, 단령의 길이는 140cm, 고대는 22.5cm이다. 교재 6은 1/4품은 30.5cm, 화장은 87cm, 진동은 30cm, 길이는 128.5cm이며, 고대는 21.5cm이다. 교재 7의 치수산출법은 1/4품은 30.5cm, 화장은 87cm, 진동은 30cm, 길이는 128.5cm, 고대는 21.5cm로 단일치수로 단령의 치수가 제시되었다.

이상 각 교재의 저고리 참고치수와 저고리 치수계산법, 두루마기의 길이계산법, 단령의 치수를 참고하여 단령의 1/4품, 화장, 고대, 진동, 길이의 치수계산법을 도출하였으며, 한복구성학 교재 단령의 평균 치수계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령의 1/4품은 한복구성학 교재 7권 중 5권은 단일치수만 제시되어 있었으며, 1권은 치수산출식만, 1권은 두 개 모두 제시되어 있었다. 단일치수는 30~31cm의 범위이었으며, 산출식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B/4+6\sim 9$ cm로 나타났다.

화장은 교재 7권 중 6권에서만 그 치수가 나와 있었고, 2권은 치수와 치수계산법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저고리 화장을 바탕으로 한 계산법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단일 치수로 제시되어 있었다. 단일치수는 87~97cm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저고리 화장을 이용한 치수산출법은 저고리 화장+5~20cm로 나타났다.

진동은 한복구성학 교재 7권 중 5권은 단일치수, 1권은 치수산출법, 1권은 두 개 모두 제시되어 있었다. 진동 단일치수는 30~33cm의 범위를 보였으며, 산출식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B/4+5\sim 7$ cm로 나타났다.

단령의 길이는 한복구성학 교재 7권 중 5권이 단일치수만 제시되어 있었고, 나머지 2권의 경우, 치수산출방법이 제시되어 있었다. 단일치수로 제시된 단령의 길이는 128~140cm이었으며, 치수산출법의 경우 2권 모두 총장-10~15.5cm 범위 안에 속하였다. 고대는 단일치수나 치수산출법이 제시된 교재 7권 중 1권의 교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일치수로 나와 있었다. 고대의 단일치수 값은 21.5~22.5cm이었으며, 치수산출식은 $(B/10+2\text{cm})\times 2$ 이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평균 남성의 신체치수와 단령치수의 차이는 저고리와 단령 사이에 입는 받침옷들로 인한 여유분과 단령이 예복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단령제도의 참고치수와 패턴은 <표 3>에 제시하였다.

3. 현대 30대 남성의 표준치수

단령은 남성이 착용한 복식으로 현재 단령을 착용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결혼식에서 폐백을 드릴 때 착용한다. 2015년 기준 남성 평균 혼인연령은 31.8세이었으므로(통계청, 2016), 본 연구의 남성 표준연령은 30대로 설정하였다. 30대 남성의 표준치수는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이즈 코리아의 6차 인체치수 조사 보고서(2010)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30대 남성의 신체를 직접 측정된 치수 가운데 단령제도에 필요한 키, 목뒤높이, 목밑둘레, 가슴둘레, 어깨가쪽사이길이, 팔길이, 무릎뼈가운데높이를 참고하였다. 키는 바닥면에서 머리마루점까지의 수직거리, 목뒤높이는 바닥면에서 목뒤점까지의 수직거리, 무릎뼈가운데높이는 바닥면과 무릎뼈가운데점 사이의 수직거리, 가쪽복사높이는 바닥면에서 가쪽복사점까지의 수직거리로 단령길이에 적용하였다. 목밑둘레는 목뒤점, 양쪽 목옆점, 목앞점을 지나 는 둘레로 화장에 적용하였으며, 가슴둘레는 양쪽 겨드랑이점을 지나 는 둘레로 길 너비에 적용

<표 4> 단령 제도에 필요한 30대 남성의 표준 사이즈 (단위: cm)

제도 필요 요소	항목	평균 치수
단령 길이	키	172.0
	목뒤높이	146.4
	무릎뼈가운데 높이	46.0
	가쪽복사높이	7.4
고대	목밑둘레	44.1
폼	가슴둘레	99.0
진동		
화장	어깨가쪽사이길이	43.2
	팔길이	58.5

하였다. 또한 어깨가쪽사이길이는 양쪽 어깨가쪽점 사이의 길이이며, 팔길이는 어깨가쪽점에서 노뼈위점까지 잰 후, 손을 바꿔 손목안쪽점까지의 길이로 화장에 적용하였으며, <표 4>는 이를 정리 한 것이다.

Ⅲ.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 분석

본 장에서는 단령 제도법에 필요한 단령 치수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들의 치수와 형태를 파악하였다.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들은 출토복식 1점, 전세 유물 15점으로 총 16점의 유물들이 확인되었으나, 치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물들 중 연구자가 직접 실측할 수 없었던 유물들을 제외한 8점의 유물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단령의 구성요소는 폼, 길이, 고대, 깃, 화장, 진동, 소매, 수구, 무, 섶, 직령의 유무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무와 섶의 치수는 연구 보고서마다 측정된 위치가 달랐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 겹섶, 안섶의 너비는 아래너비, 길이는 바깥쪽 치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길, 무, 소매, 화장의 양쪽 크기가 다를 경우 더 큰 치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5기의 단령은 단령과 직령을 연결한 겹옷과 직령 깃이 부착된 겹옷의 형태이다. 폼은 44~50cm, 평균 47.3cm로 조선시대 단령의 유물들보다 크기가 좁아졌으며, 길이는 123~136cm, 평균 129.6cm로 다른 조선시대 단령들과 비슷하였다. 고대는 18~25cm이고 평균 21.2cm로 3기와 4기보다 좁게 나타났으며, 깃 너비는 평균 4.3cm에 깃 파임은 23cm로 4기보다 덜 파인 것으로

보여진다.

화장은 80~105cm, 평균 95.6cm로 조선시대 단령들보다 많이 짧아진 형태를 보였으며, 진동은 26~37cm, 평균 31.8cm로 2기와 3기, 4기 단령의 진동보다 매우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소매너비는 36~64cm, 평균 51.7cm로 단령마다 그 차이가 매우 컸으며, 넓은 두리소매와 좁은 통수형 소매가 함께 나타났다. 수구는 18.4~33cm로 평균 25.1cm이고 3기와 4기 단령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무는 끝을 삼각형으로 한 사다리꼴형 무를 뒤로 젖혀 길에 고정된 형태와 트임이 있는 삼각형 무가 보여진다. 무의 너비는 펼쳤을 때 평균 49cm, 접었을 때에는 평균 22.3cm가 나타났으며, 무의 길이는 약 102cm정도로 보여졌다.









겹섶과 안섶은 각각 평균 너비가 38.3cm, 31cm로 약 7cm정도의 너비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길이는 겹섶 124cm, 안섶 89cm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정확한 치수분석을 위하여 단령의 폼, 길이, 고대, 깃, 진동, 소매, 수구, 무의 치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요소의 치수가 제시된 이연웅, 신태관 일가, 흥완군, 장영직, 정은가 유품의 단령을 조선시대 5기 단령 제도법의 참고 단령으로 선정하였다.

<표 5>는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들의 구성요소별 치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의 치수

(단위: cm)

작성자	품	길이	고대	깃 (깃 파입)	화장	진동	소매	수구	부		깃선		안선		구성	유물사진 및 소장처	
									너비	길이	너비	길이	너비	길이			
이연응 (1818-1897)	1	50	129.5	23	5.8 (22)	101	34.5	59	26	52 (26)	101	-	-	-	-	겹	 (출처: 경기도박물관)
	2	48	131	25	6 (22)	105	37	64	28.5	55	111	-	-	-	-	겹	 (출처: 경기도박물관)
신태관 일가 (1839-1913)	49	130	20	4 (-)	94	26	49	23	56 (22)	114	34	121.5	27.5	98	겹	 (출처: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홍완군 (1815-1923)	1	47	130	18	4.2 (21.5)	89	27	37	18.4	43.5 (17)	104.9	31.2	123.4	27	90.8	겹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2	46	136	22	4.8 (26.5)	99	32	57	26	56 (24.3)	104	44.5	128.3	37.4	90.8	겹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3	44	132	19.2	4.3 (18.9)	80	36	36	33	36.5	89.5	38.7	126.5	26.7	90	겹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장영직 (1861-1944)	46.5	125	21	4.4 (-)	98	30.2	53.4	23.8	46	97	-	-	-	-	겹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정온가 유품 (19세기)	48	123	21	5 (27.5)	99	32	58	22.5	49.5	98	43.5	120.5	36.5	76	겹	 (출처: 거창박물관)	

IV. 현대남성의 체형을 반영한 조선시대 단령 제도법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한복구성학 교재의 단령 치수계산법과 현대 30대 남성의 표준치수를 반영한 조선시대 5기 단령 제도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0대 남성의 기본치수는 6차 인체치수 조사보고서에 따라 가슴둘레 99cm, 총장 146.5cm, 화장 80cm, 고대 22cm로 설정하였으며, 모두 직접 측정치수이다.

한복구성학 교재의 단령 치수는 대부분 단일치수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교재 단령의 단일치수와 치수산출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품은 B/4+6~9cm(30~31cm), 화장은 저고리 화장+5~20cm(87~97cm), 진동은 B/4+5~7cm(30~33cm), 길이는 총장-10~15cm(128~140cm), 고대는 (B/10+2cm)*2(21.5~22.5cm)이다. 한복구성학 교재들은 대부분

유물을 토대로 하여 단일치수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치수가 아닌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수산출법을 알아보고자 하므로 한복구성학 교재들 중 요소별 치수산출법이 제시되어 있는 교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숫점 0.5를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에는 버림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올림으로 통일하여 측정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현대 30대 남성의 평균 치수를 반영한 조선시대 5기 단령 제도법은 다음과 같다.

1. 품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들 중 품이 가장 큰 단령의 1/4품은 25cm, 가장 작은 단령은 22cm로

조선시대 5기 단령의 1/4품은 약 22~25cm내외이었다. 치수와 더불어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실루엣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의 착용모습이 나타난 초상화와 회화, 사진들을 살펴본 결과, 무신년진찬도병과 현종가례진하도병에 나타난 단령 착용자들의 품은 대부분 여유로워 보이는 실루엣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빙사 단체사진에서의 착용자들은 단령의 품이 남아 넉넉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착용자들의 신분이 대부분 백관이므로 의례상 바지와 저고리 위에 여러 종류의 포를 착용한 후, 단령을 착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품은 넉넉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한복구성학 교재 7권에 제시된 단령의 품 치수 중 5권은 단일 치수만 제시되어 있었고, 1권은 치수산출식, 1권은 두 개 모두가 제시되어 있었다. 단일 치수의 범위는 30~31cm 이내이었으며, 산출식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B/4+(6\sim9)$ cm이었다.

현대 30대 남성의 가슴둘레 99cm를 기준으로 한복구성학 교재의 1/4품 산출법에 대입한 결과, 30.5~33.5cm사이로 나타났으며, 한복구성학 교재의 단일 치수보다 더 넓은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조선시대 5기 단령의 1/4품인 22~25cm와 비교해보면,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품이 현대 단령의 치수보다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5기의 회화나 초상화, 사진에서 보여진 단령의 착용모습이 넉넉한 형태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당시 사람들의 체격이 현대인에 비하여 매우 작았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품 치수는 현대 30대 남성의 단령 치수산출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실루엣만 참고하여 치수산출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품은 넉넉한 실루엣이고, 사이즈 코리아의 6차 인체치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경우, 가슴둘레가 체형에 따라 약 4~6cm의 오차범위(백분위수 25~75% 기준)를 갖기 때문에 한복구성학 교재에서 제시한 치수산출법 중 여유분이 가장 많은 $[B/4+9]$ cm의 산출법이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30대 남성의 평균 가슴둘레 99cm를 위 산출식에 적용하였을 때, 1/4품이 약 33.5cm로 현대 30대 평균 남성의 치수가 잘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단령은 두루마기와 같은 포를 여러 겹 내외로 입고 착용하는 외의이므로 내외로 착용하는 다른 포의 품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두루마기의 경우, 평균 1/4품이 $B/4+4.5$ cm이고, 단령의 1/4품은 $B/4+9$ cm이므로 전체 품을 고려해보면, 단령의 품이 두루마기의 품보다 18cm정도 여유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외의로서 착용되는 단령의 품이 내외로 착용되는 다른 포에 비하여 크다는 점을 통하여 치수산출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길이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들은 길이가 123~136cm 사이로 매우 다양한 길이의 단령들이 보여졌다. 조선시대 5기 단령을 착용하였던 인물들의 초상화와 회화를 분석한 결과, 초상화의 경우, 착용자의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길이에 대해 정확히 살펴볼 수 없었다. 회화의 경우, 무신년진찬도병을 살펴보면, 목화를 착용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복숭아뼈보다 짧은 길이에 목화의 목 부분이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또한, 당시 단령을 입은 사진들 중 서 있는 자세로 사진을 찍은 김홍집과 민영환의 사진들 역시 복숭아뼈보다 짧은 길이이며, 목화의 목 중간부분과 바지부리가 보이는 길이로 보여진다. 즉, 단령을 착용하는 착용자의 키와 체격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복숭아뼈를 덮지 않고 목화의 목 부분이 보여지는 길이의 단령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단령 길이는 대부분 단일치수로만 제시되어 있었으며, 128~140cm 사이의 길이를 보였다. 또한, 길이 산출방식이 제시된 교재들은 모두 총장-(10~15.5)cm 범위 내에서 단령 길이의 치수를 제안하였다.

6차 인체치수 조사 보고서에 따른 30대 남성의 평균 총장은 목뒤높이 146.5cm, 가쪽복사높이는 약 7.5cm이다. 현대 30대 남성의 치수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형태를 반영한 연구단령의 길이는 복숭아뼈보다는 짧지만, 목화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목화의 중간정도 길이가 적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가쪽복사높이 7.5cm

와 조선시대 목화 유물의 평균 길이 25cm의 중간 길이인 16cm정도가 5기 단령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치수라 판단된다. 또한, 30대 남성의 가쪽복사 높이가 $\pm 1\text{cm}$ 의 오차(백분위수 기준)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한 단령의 길이는 [총장-(15~17)cm]이다.

3. 소매

(1) 화장

화장은 목뒤손목안쪽길이라 표기되기도 하며, 목뒤점에서부터 손목점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30대 남성의 평균치수 항목 중 양쪽 어깨가쪽점 사이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깨가쪽사이길이와 어깨가쪽점에서부터 손목안쪽점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팔길이의 치수는 각각 43cm, 58.5cm이다. 따라서 30대 남성의 화장 길이는 1/2 어깨가쪽사이길이와 팔길이를 더한 80cm이다.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화장은 80~105cm로 길이가 매우 다양하므로 유물의 치수만으로는 단령의 화장 길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5기 때의 초상화와 회화의 모습을 통하여 5기 단령의 화장 길이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단령을 착용하였던 이하응과 최익현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소매를 걷어 올려 착용하였음에도 손끝을 덮는 길이의 매우 긴 화장이 보여지며, 민영익과 이상설의 사진에서도 화장이 매우 길어 팔부분에 많은 주름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왕세자두후평복진하도의 신하들 역시 모두 손이 덮어지는 길이에 많은 주름이 잡혀져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즉, 당시의 단령을 착용하였던 인물들의 모습을 토대로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화장은 손을 덮는 매우 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화장 길이는 87~97cm이며, 현재 단령을 착용하였을 때 화장의 길이가 손등을 살짝 덮는 길이임을 감안하면, 한복구성학 교재단령의 화장이 유물단령의 화장보다 일반적으로 더 짧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선시대 단령을 착용하였던 착용자들의 실제 화장 길이는 알 수 없어 현대 30대 남성과의 화장 길이의 변화는 파악할 수 없지만, 단령

의 착용감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대 단령의 화장 길이가 점차 짧아진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형태를 바탕으로 한 단령 제도법을 제안하고자 하므로 5기 단령 화장의 특징인 손을 덮는 길이의 화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장의 치수산출법은 착용자의 체형에 맞게 제도할 수 있도록 단일 치수가 아닌 측정치수를 통하여 산출하였고, 손을 덮는 길이이므로 실제 측정된 화장 길이에 손길이를 포함한 여유분을 주었다. 사이즈 코리아에서 연구한 30대 남성의 평균 손길이는 19cm이며, $\pm 2\text{cm}$ (백분위수 기준)의 오차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한 화장 치수산출법은 [측정된 화장+(17~21)cm]이다.

(2) 진동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들의 진동너비는 26~37cm이다. 진동의 형태와 실루엣을 유추해보고자 조선시대 5기 초상화나 회화, 사진 등을 살펴 보았으나, 대부분 손을 모으고 있거나 흥배나 대대의 착용으로 가려져 있어 착용 후 모습을 확인하는 데 한계점을 가졌다. 다만,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들의 품과 진동너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 8개의 유물들 중 오차가 심한 2개의 단령을 제외한 6개의 단령들의 진동너비가 1/4품보다 8cm정도(표준편차(S.D.)=2.95mm기준) 큰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5기 단령은 진동이 매우 넉넉한 형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한복구성학 교재 단령의 진동너비가 30~33cm이고, 5기 단령유물의 진동너비의 범위가 26~37cm라는 점에서 당시의 착용자들이 현대 남성의 체형보다 매우 왜소하였음을 감안하면, 5기 단령의 진동은 착용자의 체형에 비해 매우 넉넉한 형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 남성의 체형을 반영하고 5기 단령 진동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앞서 산출한 1/4품을 기준으로 여유분 8cm를 더한 값을 산출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즉, 연구단령의 진동산출식은 $[B/4+(14\sim 17)\text{cm}]$ 이다.

(3) 소매형태 및 수구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소매는 두리소매와 통수

형 소매 두 가지로 나타난다. 치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매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유물 14점 가운데, 정확한 치수가 제시된 8점의 유물들은 모두 두리소매 형태이었고, 정확한 치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진으로 소매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6점의 유물들은 두리소매 4점, 통수형 소매 2점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5기의 초상화와 회화, 사진들 중 소매 형태가 파악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광수의 두리소매이었고, 한복구성학 교재 단령의 패턴을 살펴본 결과, 모두 소매통 넓은 두리소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소매의 형태는 광수의 두리소매로 선정하였다.

치수가 정확하게 제시된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 8점 중 소매통이 넓은 6점의 유물 소매너비를 분석한 결과, 49~64cm이었다. 또한, 진동너비와 소매너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오차가 심한 2개의 단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23~26cm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소매형태는 소매통이 넓은 광수의 두리소매이며, 소매너비 산출식은 진동+(23~26)cm인 $[B/4+(37\sim43)cm]$ 이다. 또한, 두리너비는 유물들의 평균 치수인 5~6cm이다.

수구는 의복의 소매에서 손이 나올 수 있게 뚫려있는 부분으로 한복구성학 교재의 수구 치수는 대부분 단일치수와 진동을 이용한 치수(진동-6cm)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5기 단령은 진동너비가 매우 큰 형태의 단령이므로 한복구성학 교재에서 제시한 진동-6cm의 산출식을 반영할 경우, 수구의 너비가 매우 커져 소매가 돌아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진동과 수구의 비율을 통하여 수구의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5기 유물의 수구 치수 범위는 오차가 심한 2개의 단령을 제외하였을 때 22.5~28.5cm로 나타났다. 또한, 진동과 수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진동의 2/3(백분율 0.75~0.78 기준)로 수구 값을 산정하였다. 30대 남성의 평균치수를 반영한 연구단령의 진동값이 약 38~42cm임을 감안하면, 수구값은 약 26~28cm로 단령 유물의 수구 치수 범위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단령의 수구 산출식은 [진동*2/3cm]인 $[(B/4+(14\sim17))\cdot 2/3cm]$ 이다.

4. 고대, 깃

조선시대 5기 단령의 고대값은 18~25cm사이이며, 평균 오차범위를 벗어난 2개의 단령을 제외한 6개의 단령의 평균 고대값은 21cm이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고대는 21.5~22.5cm로 평균 고대값은 22cm이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두루마기의 평균 고대값이 20~21.5cm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루마기나 도포와 같은 포류보다 단령의 고대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들을 겹쳐 입었을 때 목 부분이 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가장 겹옷으로서 단령이 착용되었기 때문에 고대값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30대 남성의 치수 중 목밑둘레는 고대를 의미하며, 목밑둘레가 44cm이므로 30대 남성의 평균 고대값은 22cm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조선시대 단령을 착용한 남성이 아닌 현대 30대 남성이므로 착용자의 편리성을 위하여 30대 남성의 고대 치수에 맞는 치수산출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30대 남성의 평균 고대값 22cm와 가슴둘레 99cm를 역계산하여 산출한 새로운 고대 산출법은 $[(B/10+1cm)\cdot 2]$ 이다.

조선시대 5기 단령은 단령과 직령이 연결되어 있거나, 직령깃이 부착되어져 있는 겹옷의 형태이다. 단령 깃은 둥근 단령의 겹깃과 직령의 안깃으로 구분되어있지만, 안깃인 직령깃에 대한 특징은 유물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물들의 깃너비와 파임은 겹깃인 단령 깃의 치수임을 밝히고자 한다.

조선시대 5기 단령유물들의 겹깃너비는 4~6cm이며, 깃 너비를 포함한 깃의 파임 분량은 19~26.5cm이다. 조선시대 5기 단령 깃의 형태를 초상화와 회화, 착용사진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 깃 파임이 깊은 형태의 단령 깃이 보여졌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겹깃너비는 4.5~5cm이었으나 대부분 5cm이었고, 깃의 파임은 19.5~28cm로 다양하였다. 한복구성학 교재단령과 유물단령의 겹깃을 비교해보면, 겹깃 너비는 유물의 범위가 더 다양하였으며, 깃파임 분량의 범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깃너비와 깃파임은 조선시대 5기 유물단령의 치수를 바탕으로 깃너비 [4~6cm], 깃파임 [19~26.5cm]로

선정하여 착용자의 체형과 기호에 맞게 제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깃파임의 경우, 착용자의 신체치수에 따라 그 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형에 따라 깃 파임이 달라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연구자는 깃 파임의 정도를 30대 남성의 가슴둘레를 이용한 산출식으로 제시하여 착용자의 착용 후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저고리의 경우, 깃달림의 시작점을 대부분 진동시작점이나 진동을 이용한 치수를 통하여 산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연구단령의 진동 산출식인 $[B/4+(14\sim17)\text{cm}]$ 을 사용하여 깃파임 산출식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연구단령의 진동치수는 38~42cm이며, 연구자가 제시한 깃파임 너비의 평균값은 약 23cm이다. 진동과 깃파임은 약 15~19cm정도 차이가 나므로 깃파임 산출식은 $[\text{진동}-(15\sim19)\text{cm}]$ 인 $[B/4-1.5\text{cm}]$ 이다. 본 산출식에는 진동과 깃파임의 오차가 존재하므로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무

조선시대 5기 단령의 무는 사다리꼴 형태의 무를 뒤로 고정된 형태와 두루마기와 같은 삼각형 무의 형태가 보여진다. 해당 시기의 단령 유물들 가운데 무의 형태가 확인되는 유물은 7점이었으며, 그 중 6점이 사다리꼴형 무이었으므로 이를 조선시대 5기 단령의 무 형태로 선정하였다. 무의 크기는 5기의 단령 유물들 중 구체적인 치수가 제시되어있는 유물들이 거의 없었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유물의 치수를 실측하여 제시하였다. 무의 시작점은 진동의 끝이며, 유물의 접혀진 무를 펼쳤을 때 윗너비는 평균 9cm, 아래너비는 평균 49cm, 접었을 때의 평균 너비는 22cm이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단령들은 대부분 도식화를 통하여 무의 형태와 치수를 제시하였으며, 한복구성학 교재 단령의 무는 모두 사다리꼴 형태의 무로 뒷길에 고정된 형태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사다리꼴 무 형태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재에 제시된 단령의 무는 펼쳤을 때 평균 윗너비 9cm, 아래너비 40cm, 접었을 때의 평균 너비는 21cm로 나타났다. 조선

시대 5기 단령 유물의 무는 한복구성학 교재의 단령과 윗너비 치수는 같았으나, 아래너비는 펼쳤을 때 약 9cm, 접었을 때 약 1~1.5cm 더 큰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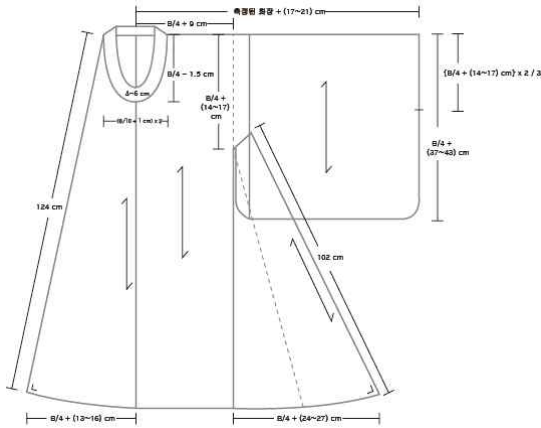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30대 남성의 체형을 반영한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제도법을 제안하고자 하나, 무의 너비와 길이는 30대 남성의 체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조선시대 5기 유물의 무 형태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즉, 무의 형태는 사다리꼴형이며, 윗너비는 9cm, 아래너비는 펼쳤을 때 49cm, 접었을 때 22cm, 길이 102cm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기준이 되는 치수와 함께 착용자의 가슴둘레에 따라 무의 너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체형과 치수에 맞는 치수산출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1/4품의 치수산출법인 $B/4+(6\sim9)\text{cm}$ 와 5기 단령 유물의 평균치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무의 아래너비 산출식은 펼쳤을 때 $[B/4+(24\sim27)\text{cm}]$, 접었을 때 $[B/4-(0\sim3)\text{cm}]$, 무의 윗너비 산출식은 $[B/4-(13\sim19)\text{c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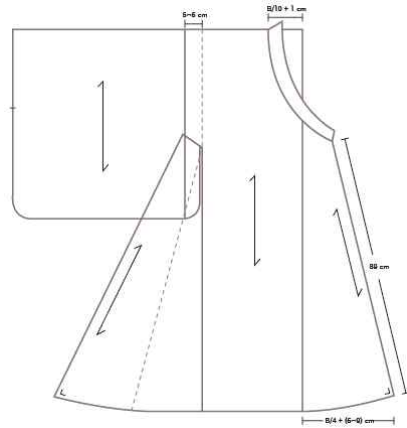
6. 설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설 크기와 치수는 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치수가 나타난 유물들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8개의 유물들 중 연구자가 설의 치수를 직접 실측할 수 있었던 5개의 유물들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유물의 겹설 아래너비는 평균 38cm이며, 안설너비는 평균 31cm로 겹설과 안설은 약 7cm 너비의 차이를 보였다. 겹설의 길이는 단령 겹깃의 시작점과 겹설 아래너비의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길이로 평균 124cm이며, 안설의 길이는 단령 안깃의 끝점과 안설 아래너비의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길이로 평균 8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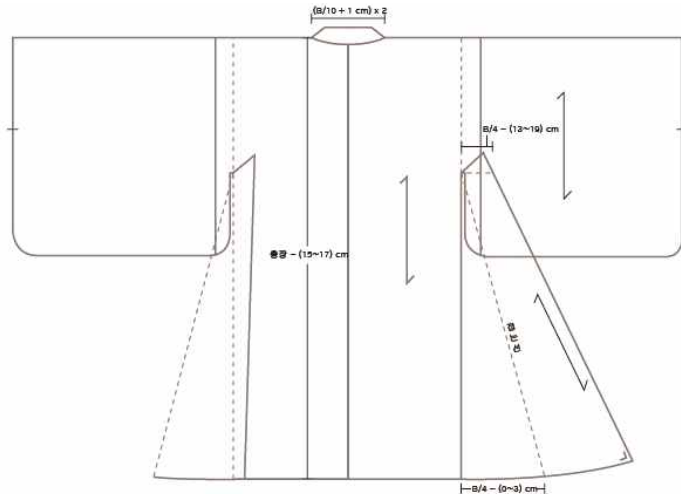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겹설과 안설의 위·아래너비를 살펴보면, 겹설의 평균 윗너비는 15.5cm, 아래너비는 31.5cm로 유물의 아래너비가 약 6.5cm정도 큰 형태이었으며, 안설의 평균 윗너비는 약 8cm, 아래너비는 25cm로 유물의 크기가 약 6cm 컸다. 길이는 겹설의 경우 약 122cm, 안설은 약 105cm로 겹설은 유물의 길이가 2cm 더 길었으며, 안설은 16cm 더 짧았다.



<그림 1> 단령 연구제도법 I - 앞모습(겉섿)



<그림 2> 단령 연구제도법 II - 앞모습(안섿)



<그림 3> 단령 연구제도법 III - 뒷모습과 소매

이처럼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섿 크기와 한복 구성학 교재의 평균 섿 크기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5기 단령의 섿 크기가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기 단령의 형태를 반영하고자 하므로 유물의 섿을 바탕으로 겉섿과 안섿의 크기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5기 단령유물의 치수와 30대 남성의 가슴둘레를 반영한 치수 산출법은 겉섿 $[B/4 + (13\sim16) \text{ cm}]$, 안섿은 $[B/4 + (6\sim9) \text{ cm}]$ 이다.

단령의 각 요소별 특징에 따라 산출하고자 하는 제도의 방법들은 각기 달랐으며, 30대 남성의

평균 치수를 반영한 조선시대 5기 단령 제도법을 정리하면, <그림 1>~<그림 3>과 같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복구성학 교재 단령의 바탕이 되는 조선시대 5기 단령을 중심으로 교재와 유물 단령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현대 30대 남성의 체형에 맞는 단령 제도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5기 단령은 초상화와 회화, 유물들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였고, 한복구성학

교재는 리서치사이트 랭키닷컴을 토대로 단령 제도법이 제시된 교재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단령 제도법들은 대부분 치수산출법이 아닌 유물을 토대로 한 직접 치수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체형에 따른 치수산출 및 단령 제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단령 제도법에 대한 차이는 매우 다양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단령을 착용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30대 남성임을 감안하여 30대 남성의 표준치수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5기 단령 제도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령은 저고리와 바지 위에 여러 종류의 밑받침 옷을 입은 후 착용하는 포로 다른 포들에 비해 품의 여유분이 필요한 의복이다.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의 품은 현재에 비하여 매우 작은 치수이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체격이 현재에 비하여 왜소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단령 유물의 품은 현대 30대 남성의 평균치수보다 작았으므로 30대 남성의 치수를 반영한 단령 치수산출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복구성학 교재의 1/4품 치수산출법인 $B/4+6\sim 9\text{cm}$ 를 바탕으로 여유분이 가장 많은 $[B/4+9\text{cm}]$ 를 연구단령의 품 계산법으로 설정하였다.

단령의 길이는 조선시대 5기 단령을 착용하는 착용자의 키와 체격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복숭아뼈를 덮지 않고 목화의 목 부분이 보여지는 길이이었다. 이러한 단령의 형태를 반영한 연구단령의 길이는 $[\text{총장}-(15\sim 17)\text{cm}]$ 이다.

화장의 경우, 당시의 단령을 착용하였던 인물들의 모습을 토대로 조선시대 5기 단령의 화장은 손을 덮는 매우 긴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5기 단령화장의 특징이 손을 덮는 길이를 반영하여 실제 측정된 화장 길이에 손길이를 포함한 여유분을 주었고, 도출된 화장 치수산출법은 $[\text{측정된 화장}+(17\sim 21)\text{cm}]$ 이다.

진동은 유물단령의 품과 진동너비 고려해 보았을 때 매우 넉넉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30대 남성의 체형을 반영하고 5기 단령 진동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앞서 산출한 1/4품을 기준으로 여유분을 더하였고, 그 결과

연구단령의 진동 산출식은 $[B/4+(14\sim 17)\text{cm}]$ 이다.

조선시대 5기 단령유물들을 통하여 분석한 단령의 소매형태는 소매통이 넓은 광수의 두리소매이며, 진동너비와 소매너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오차가 심한 2개의 단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23~26cm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소매너비 산출식은 $\text{진동}+(23\sim 26)\text{cm}$ 인 $[B/4+(37\sim 43)\text{cm}]$ 이다. 또한, 두리너비는 유물들의 평균 치수인 5~6cm이다.

수구는 진동과 수구의 비율을 통하여 산출방법을 제시하였고, 대부분 진동의 2/3(백분율 0.75~0.78 기준)를 수구값을 산정하였으므로, 수구 산출식은 $[\text{진동}\times 2/3\text{cm}]$ 인 $[(B/4+(14\sim 17))\times 2/3\text{cm}]$ 이다.

단령의 고대는 의복들을 겹쳐 입을 때 목부분이 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루마기나 도포와 같은 포류보다 고대값이 더 컸다. 고대 계산법은 한복구성학 교재의 고대 치수산출법을 바탕으로 30대 남성의 평균 가슴둘레와 조선시대 단령 유물의 평균 고대값을 역계산한 결과, $[(B/10+1\text{cm})\times 2]$ 이다.

깃너비와 깃과임은 조선시대 5기 유물단령의 치수를 바탕으로 깃너비 $[4\sim 6\text{cm}]$, 깃과임 $[19\sim 26.5\text{cm}]$ 로 선정하였으며, 깃과임의 경우, 착용자의 신체 치수에 따라 그 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30대 남성의 가슴둘레를 이용한 산출식으로 제시하였다.

깃과임 산출식은 $[\text{진동}-(15\sim 19)\text{cm}]$ 인 $[B/4-1.5\text{cm}]$ 이다.

무는 사다리꼴형이며, 유물 평균값인 윗너비 9cm, 펼쳤을 때의 아래너비 49cm, 접었을 때의 아래너비 22cm, 길이 102cm를 기준 치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준이 되는 치수와 함께 착용자의 가슴둘레에 따라 무의 너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체형과 치수에 맞는 치수산출법을 제시하였다. 무의 아래너비 산출식은 펼쳤을 때 $[B/4+(24\sim 27)\text{cm}]$, 접었을 때 $[B/4-(0\sim 3)\text{cm}]$ 이며, 무의 윗너비 산출식은 $[B/4-(13\sim 19)\text{cm}]$ 이다.

조선시대 5기 단령유물의 걸쇠 아래너비는 평균 38cm이며, 안설피너비는 평균 31cm로 걸쇠와 안설피는 약 7cm 너비의 차이를 보였다. 걸쇠의 길이는 평균 124cm이며, 안설피의 길이는 평균 89cm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물의 섶을 바탕으로 30대 남성의 가슴둘레를 반영한 걸쇠와 안설피의 크기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섶의 치수

산출범은 겹설피너비 [B/4+(13~16)cm], 안설피너비 [B/4+(6~9)cm]이다.

이처럼 다양한 한국복식디자인의 제작 및 응용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형패턴설계 및 치수산출법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5기 단령 유물들 중 연구자가 직접 실측할 수 없고, 치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물들을 제외한 8점의 유물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자는 30대 남성의 체형을 반영한 조선시대 5기 단령 제도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조선시대 각 시대별 단령 패턴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장기적인 한국복식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복식의 품목별 제도법 설정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조선시대 5기 단령의 원형을 계승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추후 단령 제작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순제, 홍나영, 남윤자, 조효숙, 황의숙. (1999). 20대 남자 한복 기성복화를 위한 바지·저고리 패턴개발. *복식*, 47(-), 61-71.
- 강순제, 김미자, 김정호, 백영자, 이은주, 조우현, 조효숙, 홍나영. (2015). *한국복식사전* 서울: 민속원.
- 경기도박물관. (2008).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경기: 경기도박물관.
- 구혜자. (2002). *한복만들기 구혜자의 침선노트(II)*.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국립중앙박물관. (2011). *초상화의 비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김문자. (2015). *한국복식사 개론*. 경기: 교문사.
- 김미자. (1982). 우리나라 공복에 관한 연구. *복식*, 6(-), 173-189.
- 김분칠. (1989). *한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김신애, 장민정. (2015).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13(2), 10-21.
- 김정호, 이미석. (2004). *우리 옷 만들기(제2개정판)*.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 김희숙. (1988). 컴퓨터에 의한 한복 여자 두루마기 원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319-331.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경기: 단국대학교출판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유당 신태관 일가 유물*. 경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5). *분홍 단령의 비밀*. 서울: 민속원.
- 랭키닷컴. (2016. 12. 30). 온라인 서점 순위. 자료 검색일 2017. 1. 28, 자료출처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
- 문공화. (2004). *조선시대 단령의 착용규제와 실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문화재② 복식·자수편*. 서울: 문화재청.
- 박선영. (2001). *전통한복구성학*. 서울: 수학사.
- 박성실. (1994). 천안출토 풍산홍씨 유물소고. *복식문화연구*, 12(-), 119-147.
- 박성실, 조선희, 이혜준. (2004). 중요민속자료 실태 조사서. *문화재청*, 121-167.
- 박영순. (1994). *전통한복구성*. 서울: 신양사.
- 박정혜, 이예성, 양보경. (2005).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서울: 민속원.
- 사이즈코리아. (2010).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3차 원형상측정 조사사업 보고서(20~39세)*. 충북: 국가기술표준원.
- 서옥경. (2002). *한국의상구성*. 서울: 경춘사.
- 신혜성, 홍나영. (2007). 풍속화에 나타난 혼례용 단령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6), 23-35.
- 심화진, 장민정, 최은경, 조미나, 윤혜성, 오석란, 이혜영. (2015). *우리 옷 만들기(개정2판)*.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안명숙, 김용서.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 엄란이, 이예진. (2014). 20대 후반 여성의 상반신 뒷면 형상에 따른 저고리 원형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23(6), 1191-1204.
-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 유희경, 김문자. (1981). *한국복식문화사*. 경기: 교문사.
-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과 상복 제도 변천. *복식*, 55(6), 38-50.
-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길김승홍배와 함께*

- 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 이주원, 김월계. (2013). *이론을 체계화한 한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 이춘경. (2005). *전통 단령과 현대단령에 관한 실증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임. (2010). 한복두루마기 원형제도법 개발을 위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4). 71-81.
- 조윤숙, 홍선옥. (2011). *한복구성*. 서울: 경춘사.
- 최은수. (2004).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